대전시 1인 가구의 변화 및 향후 대응방안[1)]

임병호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Ⅰ. 서론

우리나라의 가족단위가 과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에서 1인 가구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여성들의 사회진출, 과다한 결혼비용 그리고 이혼과 독거노인의 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2)]

대전시 1인 가구비율은 1990년 전 가구의 7.8%였으나, 2000년 15.2%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 25.3%로 급증하고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적 여건변화에 비해, 1인 가구의 실태나 특성 등에 대한 진단 및 예측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선행 연구의 경우 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가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적 내용이나 공간적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원고는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도시환경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절한 도시정책 수립 및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전시 1인 가구의 특성을 진단하고, 이

1) 본 원고는 2012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대전시 1인 가구의 증가와 대응방안 연구」를 압축 · 요약한 것임

2) 삼성경제연구원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요인을 경제적 요인에서는 소득증가, 교육수준 향상, 여성고용 확대, 문화적 요인으로는 개인주의 확대, 초혼연령 상승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고령화 심화,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 등으로 적고 있다.(2012.p.2)

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대응방안을 제안함으로서, 향후 대전시 도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1인 가구의 문화 및 소비적 특성

1) 1인 가구의 사회 문화적 특성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에서는 1인 가구를 [표 1]과 같이 골드미스 · 미스터,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였다.

골드미스 · 미스터는 개인주의 확산, 산업예비군은 3D 업종 기피, 불안한 독신자의 경우 가족가치 변화 그리고 실버세대의 경우 대가족제 붕괴와 같은 가치관(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1인 가구 집단의 사회 문화적 특성

영역 \ 대상	골드미스 · 미스터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가치관	• 개인주의 확산 • 개성과 다양성 존중	• 3D업종 기피 • 속성은 의존적인 캥거리 코쿤족 요소도 공존함	• 가족가치 변화	• 대가족제 붕괴
경제환경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 풍요로운 성장세대	• 청년 실업률	• 중장년 실업증가	• 사회적 안전망 약화 • 노인빈곤율 증가
사회·문화적 영향	• 남성 가부장 역할 변화 • 긍정적 싱글이미지	• 사회 부유(浮游)층 가능성	• 교육현상과 기러기 가족 • 이혼율의 증가	• 고령화사회의 세력 집단화 가능성
정책적 함의	• 포섭대상으로서 도시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	• 긴급한 정책지원 필요 • 현재적 문제 뿐 아니라 고정 계층화 시 중·장기적 사회문제 발생	• 유동성이 큰 계층 • 비자발적 1인 가구 (가족해체자 등)는 빈곤층 대상임	• 경제중심의 사회 안전망 지원 정책 • 공동체 통합성 지원책

출처 : 서울시정연구원(2008)

2) 1인 가구 증가의 4대 소비트랜드[3)]

1인 가구의 부상은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이어 소비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떠

3) SERI 경영노트(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트랜드

오르고 있다. 1인 가구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1년 1인 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은 50조원에 이르며, 월평균 1인당 소비지출액이 95만원으로 2인 이상 가구의 73만원을 앞지른다. 특히 인구 비중과 소득, 지출이 모두 높은 20~50대 1인 가구는 주력 소비자로 주목받고 있다.

1인 가구의 부상이라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은 1인 가구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인(多人) 가구와는 차별화된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는 고립되어 생활하는 특성상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며, 가족에 대한 의무가 적은 대신 자기 관리와 계발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편이다. 이에 따른 4대 소비 트렌드를 꼽아보면 ① 소형(크기는 줄이되 성능은 유지 :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콤팩트한 주택) ② 효율(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사용 : 제한된 주거공간을 효율적이면서 심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기능 상품과 디자인 상품) ③ 안전(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 : 여성 및 고령자 특화 가정용 방범 서비스 인기) ④ 나(자기가치 제고와 여가 향유 : 패션, 미용, 취미를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 지출)를 들 수 있다.

[그림 1] 1인 가구의 특성과 소비트랜드

※출처 : http://gnnews.newsk.kr/bbs/bbs.asp?group_name=426&idx_num=23859&exe=view

Ⅲ. 대전시 1인 가구의 규모변화 및 예측

1) 대전시 1인 가구의 규모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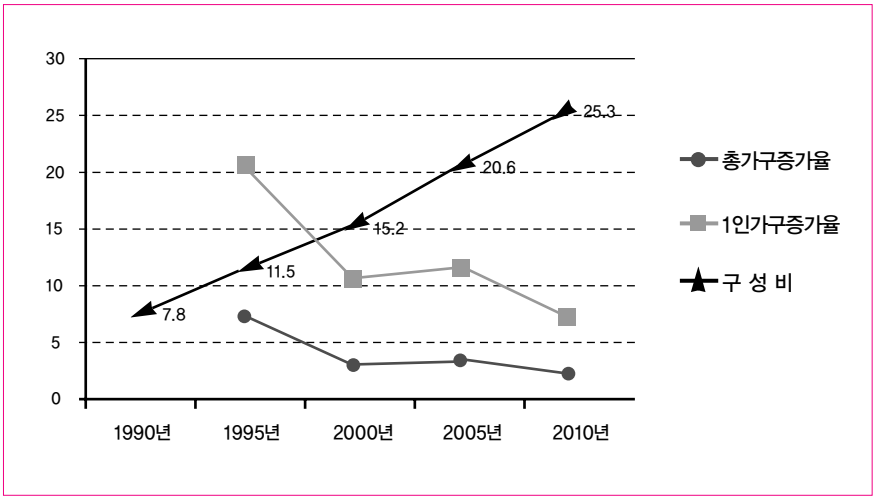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대전시 1인 가구의 규모변화는 [표 2]와 같다.

대전시 1인 가구는 1990년 20,327가구에서 2010년 134,938가구로 20년간 연평균 28.2%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에 따라 총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전체 가구의 7.8%에서 2010년 25.3%로 지난 20년간 17.5% 증가하였다.

[표 2] 대전시 1인 가구 규모 변화 추이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0~2010년 변화(율)
총 가구수	262,193	357,814	413,758	478,865	532,643	270,450
총 가구 증가율(%)	–	7.3	3.1	3.1	2.2	5.2
1인 가구	20,327	41,142	62,742	98,678	134,938	114,611
1인 가구 증가율(%)	–	20.5	10.5	11.5	7.3	28.2
구성 비율(%)	7.8	11.5	15.2	20.6	25.3	17.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



[그림 2] 대전시 1인 가구 증가율 및 구성비 변화

2) 5개 구청별 1인 가구 규모의 변화 추이

2010년 기준 대전시 5개 구(區)의 1인 가구규모를 살펴보면, 서구에 44,614가구가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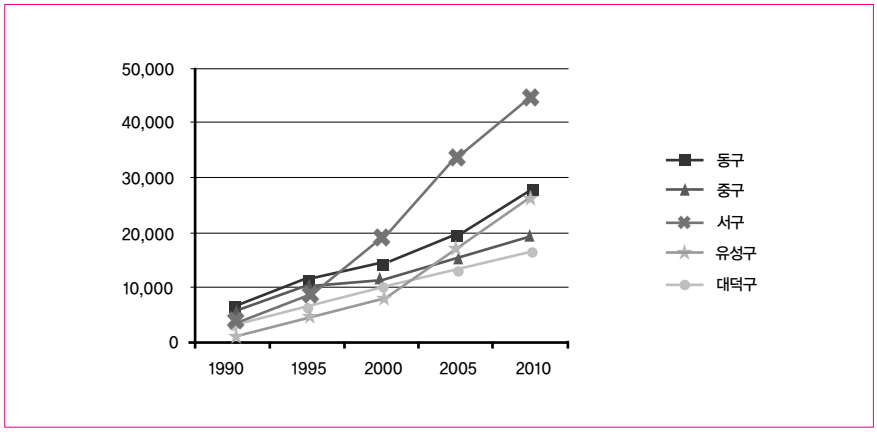
하여 가장 많으며, 다음은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순으로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서구에 이어 동구에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학생과 노인들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20년간 1인 가구 증가를 살펴보면, 유성구가 연평균 146.1%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서구로 60.9%의 증가율을 보여, 이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구의 1인 가구 증가율은 5개 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전시 5개 구청별 1인 가구 변화 추이

구 분	대 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1990년	20,327	6,648	6,142	3,387	879	3,271
1995년	41,142	11,619	10,236	8,523	4,339	6,425
2000년	62,742	14,415	11,495	19,052	7,752	10,028
2005년	98,678	19,474	15,313	33,766	17,001	13,124
2010년	134,938	27,916	19,306	44,614	26,555	16,547
연평균 증가율(%)	28.2	16.0	10.7	60.9	146.1	20.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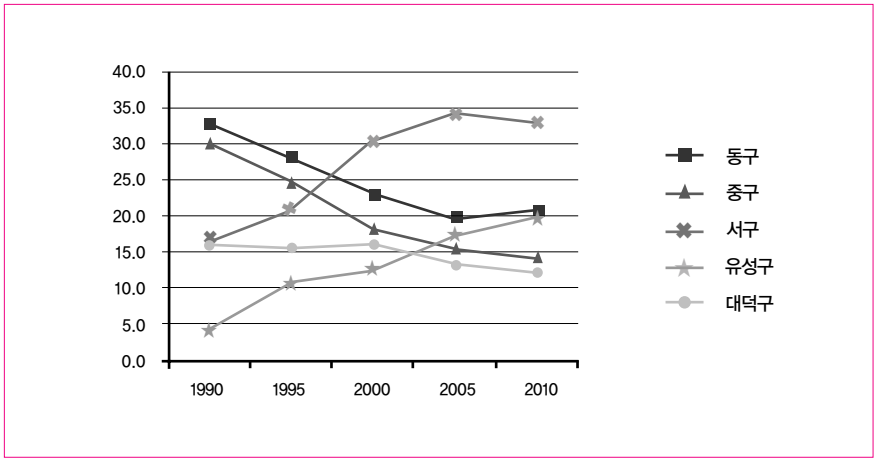
[그림 3] 대전시 구별 1인 가구 규모 변화

대전시 1인 가구에 대한 5개 구의 점유비율을 도출하면 [표 4]와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와 유성구에서의 급속한 1인 가구증가로 인해 2010년 서구는 대전시 1인 가구의 33.1%, 유성구는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32.7%의 점유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동구는 2010년 20.7%로 점유비율이 감소하였다. 2010년 중구의 점유비율은 14.3%로 1990년의 절반 수준이며, 대덕구는 12.3%이다.

지난 20년간 1인 가구 점유비율의 변화를 보면, 서구는 16.4%, 유성구는 15.4% 증가하였으며, 중구는 15.9%, 동구는 12.0% 그리고 대덕구는 3.8% 감소하였다.

[표 4] 대전시 구별 1인 가구 점유비율

구 분	대 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1990년	100.0	32.7	30.2	16.7	4.3	16.1
1995년	100.0	28.2	24.9	20.7	10.5	15.6
2000년	100.0	23.0	18.3	30.4	12.4	16.0
2005년	100.0	19.7	15.5	34.2	17.2	13.3
2010년	100.0	20.7	14.3	33.1	19.7	12.3
점유비율변화	–	–12.0	–15.9	16.4	15.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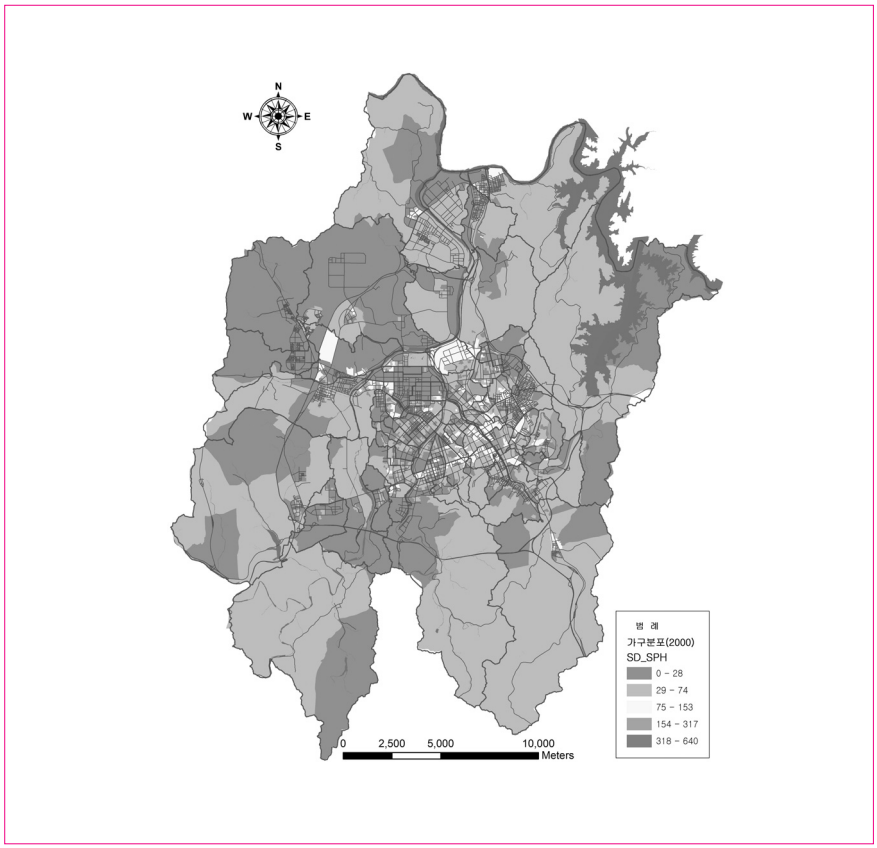
[그림 4] 대전시 구별 1인 가구의 점유비율 변화

2)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변화

(1) 2000년

200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동별 분포는 [그림 5]와 같다. 1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원도심 지역(대전역 인근),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인근,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학교 인근, 유성구 온천지역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전산업단지(1, 2 산업단지)와 충남대학교 서측지역도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전시 1인 가구는 앞서 검토된 바와 같이,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도심 지역에서의 분포는 고령자 거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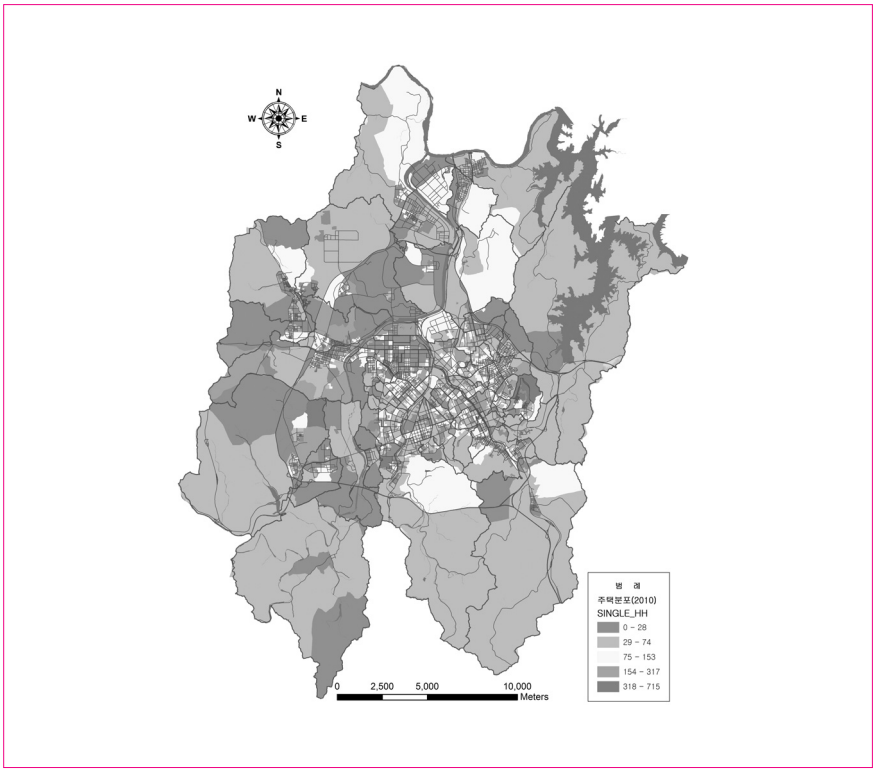


[그림 5] 200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2) 2010년

201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으며, 2000년과 비교하여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가 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0년 기준으로 형성되었던 1인 가구 분포지역들의 밀도가 보다 강화되고, 일부 지역의 경우 공간적 확산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둔산과 원도심 지역에서는 1인 가구 밀도증가가 이루어지고, 유성 등 외곽지역에서는 1인 가구의 지속적인 확산이 진행되었다.



[그림 6] 2010년 대전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3) 대전시 1인 가구 장래 규모 예측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의 장래 1인 가구비율을

도출하면 [표 5]와 같다.

대전시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30.0%에서 2020년 31.9%, 2025년 33.8%, 2030년 35.3% 그리고 2035년에는 37.3%로서 다른 대도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35년 다른 대도시의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광주시가 36.4%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부산시는 35.7%, 대구시는 33.4%, 인천시는 31.8%, 서울시는 30.8% 그리고 울산시는 가장 낮은 28.4%의 1인 가구 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예측치를 기준으로 볼 때, 대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5] 주요 대도시의 장래 1인 가구비율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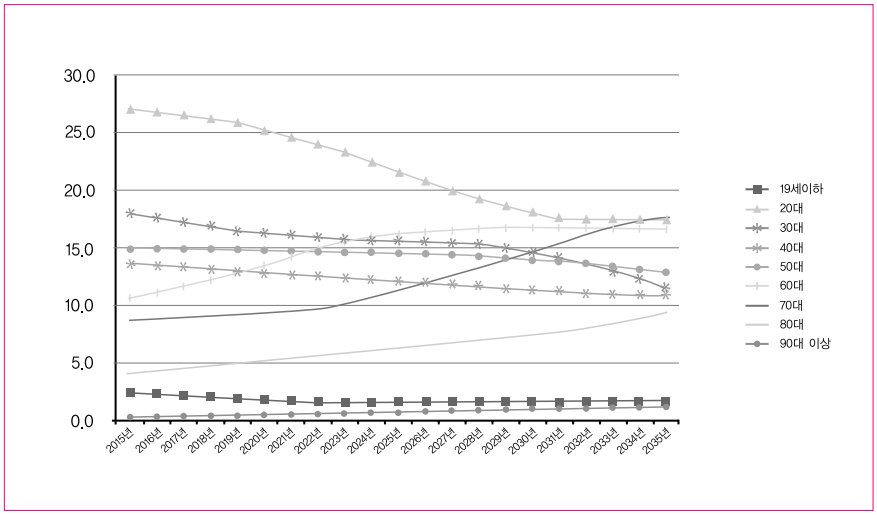
(단위 : %)

년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5	26.1	28.1	27.1	24.4	30.0	**30.0**	23.5
2016	27.4	27.7	25.9	24.4	28.2	**29.8**	23.6
2017	27.8	28.3	26.5	24.9	28.8	**30.3**	24.0
2018	28.2	28.9	27.0	25.4	29.4	**30.9**	24.4
2019	28.6	29.4	27.5	25.9	30.0	**31.4**	24.8
2020	28.9	29.9	28.0	26.4	30.6	**31.9**	25.1
2021	29.1	30.4	28.4	26.8	31.1	**32.3**	25.5
2022	29.4	30.8	28.8	27.2	31.6	**32.7**	25.8
2023	29.6	31.2	29.2	27.6	32.1	**33.1**	26.0
2024	29.7	31.6	29.6	28.0	32.5	**33.5**	26.3
2025	29.8	32.0	29.9	28.3	32.9	**33.8**	26.5
2026	29.9	32.3	30.3	28.6	33.2	**34.1**	26.7
2027	29.9	32.6	30.6	29.0	33.6	**34.4**	26.9
2028	30.0	33.0	30.9	29.3	33.9	**34.7**	27.1
2029	30.0	33.3	31.3	29.6	34.2	**35.0**	27.2
2030	30.1	33.7	31.6	30.0	34.6	**35.3**	27.4
2031	30.2	34.1	31.9	30.3	34.9	**35.7**	27.6
2032	30.3	34.5	32.3	30.7	35.3	**36.1**	27.8
2033	30.4	34.9	32.6	31.0	35.6	**36.5**	28.0
2034	30.6	35.3	33.0	31.4	36.0	**36.9**	28.2
2035	30.8	35.7	33.4	31.8	36.4	**37.3**	28.4

주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대전시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는 2015년 27.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21.5% 그리고 2035년에는 17.5%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30대 1인 가구의 경우도 2015년 18.0%에서 2035년 11.6%로 감소하며, 50대 1인 가구의 경우도 2015년 14.9%에서 2035년 12.9%로 감소가 예상되었다. 반면 60대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10.6%에서 2025년 16.2% 그리고 2035년에는 16.6%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70대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8.9%에서 2035년 17.7%로, 80대 1인 가구의 경우도 2015년 4.1%에서 2035년 9.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20대 1인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30-50대 1인 가구비율은 10% 초반으로 수렴하는 반면, 60-70대 고령 1인 가구비율이 10% 후반대로 20대 1인 가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대전시 장래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점유비율 변화

Ⅳ.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전시 대응방안

대전시 1인 가구의 분포현황 및 타 대도시와 비교 등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대전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는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향후 지속적인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되, 획일화된 1인 가구 전용적인 주거공간 보다는 가변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거공간 및 유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되, 향후 2인 이상의 다인가구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변적 주거공간을 공급토록 한다.

둘째, 대전시 1인 가구 정책은 다인가구(2인, 3인 가구 등) 유형에 비해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약자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복지정책과 연동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거정책 측면에서는 1인 가구를 고려한 임대주택의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1인 가구는 주거선택 시 교통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고지가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매입 임대주택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가구 중 많은 수가 고령자임을 고려할 때, 고령자 복지정책과 1인 가구 대응정책이 상호 밀접하게 연동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사회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주로 주거공간의 확보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 1인 가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 약자가 많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취업기회 확대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생활함으로 인해 우울증 등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4], 가족이 수행했던 돌봄의 역할을 지역 커뮤니티 등이 분담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삼성경제연구소(2012, p.11)

참고문헌

- **김옥연 외 (2009),** 1인 가구 주거실태 분석 : 서울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지 주거환경 제7권 제2호
- **대전시 (2011),** 2020년 대전광역시 주택종합계획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서울시 1 · 2인 가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주택정책방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 **서울시 (2011),** 2020년 서울주택종합계획
- **신상영 (2010),** 1인 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사례로, 국토계획 제45권 제4호
- **안신현 (2012),**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트랜드,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영노트, 2012년 8월호(제159호)
- **이창효 외 (2010),** 서울시 1인 가구의 밀집지역 분석과 주거환경 평가,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2호, p.69-84
- **이희연 외 (2011),** 1인 가구의 인구 · 경제 ·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제4호
- **Wuff, M. (2001),** Growth and Change in One Person Households :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Market, Urban Policy and Research, 19(4) : 467-489
-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자료,** http://blog.daum.net/korea_brand/2020(2012.10.2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moun&logNo=9012425627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rgarden&logNo=10109503518
  http://gnnews.newsk.kr/bbs/bbs.asp?group_name=426&idx_num=23859&exe=view